

Ⅲ. 토 론 - 김경호(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협동조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충남 홍성군 홍동지역을 중심으로⁴¹⁾

(A Case Study of the Impact on Local Development through the Cooperatives: Focusing on Hong-dong Area)

김경호(Kim, Kyeong-ho)⁴²⁾

	<目次>
Abstract	Ⅲ. 연구 설계
I. 서론	Ⅳ. 홍동지역 협동조합방식의 지역발전 요인 분석
Ⅱ. 이론적 검토	V. 결론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 case of development of cooperative union that can solve unbalanced development of the region in Hongdong area. First, the formation of community was analyzed through traditional, histor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and development phenomena were examined through characteristics of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ies and exogenous development. Finally, foreign cases were examined to extract regional development factors including basic,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factors.

First of all, basic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human resources, education, and network; and human resources were further subdivided into three (3) generations in order to recognize the roles of human resources in developing cooperative unions in Hondong area. Education was categorized into formal and social education programs to see how education is performed related to cooperative unions. Network was examined to see which interactions among organizations, living groups, and cooperative unions affect the development of each group. Secondly, institutional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judicial system, support system, and middle-level support organization; and they were examined for their influences on cooperative unions. Lastly, operational factors were reviewed for operational principles, finance, and model construction.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roved that cooperative unions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adopting cooperative unions to local areas will be very beneficial to regional development.

Keywords: cooperative union, community, Hongdong area, regional development factors, regional development

I. 서 론

41) 이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발전시킨 것입니다.

42)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대한민국은 97년도 구제금융과 더불어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관통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만성적인 실업과 비정규직의 양산, 분배의 불균형에 의한 양극화, 중산층의 몰락, 경기 하락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시켜왔다. 따라서 세계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과와 반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신정완, 2005) 논쟁은 주로 제3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제도의 영미권과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경제제도가 어떻게 한국사회에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그러나 논쟁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000년 초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자활공동체를 시작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보수정권은 미국 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유주의 이념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 빈부격차 심화, 경제의 재벌 집중 가속화 등 사회문제는 지속되었다. 또한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교우위론적 성장위주의 정책과 개방화, 세계화는 지역의 몰락을 재촉하였다. 중앙과는 달리 지역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무한경쟁 속으로 내던져진 지역은 결국 고령화, 인구감소, 소득축소, 복지 축소 등 심각한 지역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한국사회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보수정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발전하면서 자립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의 지원 하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자활기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14년 전 협동방식의 공동체 기업으로 출발하였으나 지금까지 조직적 지원⁴³⁾에도 불구하고 정체 상태에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부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협동방식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2012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반성⁴⁴⁾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은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인식부족, 협동정신의 역사적 단절, 일제 강점기에 금융조합으로 출발한 농협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지역에서 단체들이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자조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성장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립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생태계 구축에 실패하는 가운데 홍동지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홍동지역의 경우 해외사례에서 발전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홍동지역 사례에 적용하여 발전요인을 추출함으로써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접목함으로써 한국적 상황에 맞는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43) 2014년 현재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는 247개가 존재하며 1개 지역자활센터에는 5~10여명이 근무하며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44)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립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의 지원 하에 성장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II. 이론적 검토

1. 지역발전의 개념과 이론

1) 지역발전의 개념

지역의 개념은 학문적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공간 개발 분야에서의 지역 개념은 국가의 하위 공간 단위로써 중간 계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내 여러 공간 단위들은 공통의 특성이 있거나 상호 보완적이고 밀접한 기능 연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간 단위 간 지리적 연속성을 가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의미로써 지역은 주로 공동체적 의미로 보는 시각이다. 이는 지역이 가진 특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동질성과 응집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지리적으로 같은 공간 내에서도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분되기도 하며 때로는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의 구분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테일러(Taylor)는 물질적인 개선이 지역사회 개발 범주에 포함되고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생활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USOM, 1985). 김용웅(2011)도 복수의 공간 단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개념적 정의에서 지역은 지리적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상호 간 심리적, 유대를 가진 구성원이 존재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발전은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욕구에 대한 해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및 사회서비스 발전, 경제적 문제의 해결 등 포괄적인 의미로 정리하고자 한다.

2) 지역발전이론

지역발전 이론⁴⁵⁾과 관련하여 김용웅(2011)은 경제적 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조직화하고 변화되는지를 설명하는 공간조직이론(spatial organization theories)과 경제성장이 공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설명, 기술하거나 지역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다루는 지역발전 이론(regional development theories)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지역발전이론을 전통적 지역발전이론과 대안적 이론발전으로 체계화하였다. 전통적 지역발전이론에는 성장거점이론과 공간전략이론, 추진전략이론 등이 있다.

먼저 성장거점발전 이론은 저개발지역의 경우 외부로부터 자원을 유입하여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1960~70년대까지 북미(미국, 캐나다)와 남미(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시아(일본, 태국, 필리핀) 및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의 여러 국가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채택한 이론이다(김태환 외, 2004).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간전략 이론은 공간의 균형,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구분하며 균형발전전략은 지역 간 성장률과

45) 지역발전이론의 분류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학에서는 실증적 지역 경제이론에 입각해 입지이론, 거시수요모형, 교역 및 요소 이동이론, 지역성장이론을 기초 이론으로 제시한다. 입지이론에는 최적입지론과 호텔링(Hotteling)·뢰쉬(Lösch)의 입지이론, 일반균형이론이 포함되며, 거시수요모형에는 수출 기반 모형, 지역 간 소득 모형, 지역 간 수지균형모형, 수요성장모형이 있다. 그리고 교역·요소 이동이론에는 지역 간 교역, 생산요소, 인구, 자본 이동 등이 있다(김용웅, 2011, 재인용). 우리나라에서의 지역발전전략과 이론에 대한 유형 구분은 고병호(1994), 조명래(1995), 김용웅 외(2011)등에 의해 시도되었다. 고병호(1994)는 지역발전이론을 성장모형, 재배분모형, 유연체계모형, 환경모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발전 수준을 비슷하게 분산하기 위해 지역개발 투자를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산하는 전략이다. 지역발전에서는 주민 소득증대나 복지 증진의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채택하게 되는 전략이다. 공간 불균형 발전전략은 중심부의 성장 효과를 산업과 연계하면서 발전의 공간적 확산 과정을 통해 주변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전략이론으로 지역발전 정책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추진전략이론에는 지역개발의 집행전략이론과 지역개발의 자원활용전략이론이 있다. 집행전략이론에는 상향적 지역개발 전략과 하향적 지역개발 전략이 있다. 상향적 지역개발 전략은 정책목표의 설정과 전략의 추진이 중앙정부, 관료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개발 전략을 말한다. 상향적 전략개발은 경제적 기준, 경쟁적 행태, 외부적 동기부여, 대규모 재분배의 체제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정의되어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목표, 협동적 행태, 내생적 동기부여 측면으로 이해된다. 자원활용전략이론에는 외생적 지역개발전략과 내생적 지역개발전략으로 구분한다. 외생적 전략이론은 지역성장에 있어 내부적 자극이나 잠재력보다 외부적 자극과 잠재력에 의존하는 성장 지향적 개발전략을 이전적 접근방법(transferential approach) 또는 외부지향적 지역개발(external-oriented development)이라고 한다. 이 전략은 외부에 지역개발을 맡기는 형태로 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 경제가 외부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의존성이 심화하여 지역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직접 연계되지 못하며 지역자원을 단순히 생산 수단화하여 지역의 잠재자원과 개발역량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역자원과 환경의 남용과 오염으로 개발 잠재력을 약화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발전전략이다(김용용·차미숙, 1998).

내생적 개발전략은 경제성장이나 산업의 발전보다는 주민 개개인의 소득 및 복지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역개발전략으로 복지 지향적 지역개발(welfare-oriented regional development)이라고도 한다. 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시키며 개발투자도 하향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교육, 보건, 사회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전략이 우선한다. 특히 지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의 기술과 자본이 아니라 내부의 자원과 기술을 통해 산업구조의 개편과 생산방식을 만들어 가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내부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전환적 접근방법(transformational approach)이라고도 불린다. 아울러 이 전략은 지역 수요와 지역참여 등 내부적인 자극과 자원에 의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내생적 지역개발(endogenous development)이라 부른다(김용용·차미숙, 1998).

2. 협동조합의 개념 및 가치

협동조합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국제 연합체인 ICA가 국제적으로 상호 간 협의에 따른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국제 협동조합연맹(ICA)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ICA의 이러한 정의는 협동조합을 완벽하게 정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이들은 각각 별도의 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운동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왔으며 이 가운데 협동조합이 가진 가치에 대한 논의도 많은 사상가와 함께 이뤄졌다. 이들의 노력은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운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체계를 구축했다. 레이들로 박사의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의 갈 방향에 대한 제시와 함께 협동조합의 규범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후, 마커스와 뵈크 등의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었고 결국 ICA는 1995년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하여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각 설립자의 전통

을 이어받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로 발표했다.

협동조합이 지녀야 할 가치는 우선 "자조(self-help)"이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다음은 "평등(equality)"으로서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평등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세 번째로는 형평성(equity)이다. 조합원은 조합 사업에 대한 참여의 결과로 이용고 배당, 출자 배당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네 번째로는 상호부조와 연대로 조합의 재정적, 사회적 자산은 조합원 전체의 것으로 그것이 조합원 모두 공동행동과 참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장종익·김신양 역, 2001).

협동조합은 자체만의 내용도 중요하나 조합원이 지녀야 할 가치도 담겨있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해 배려가 있어야 한다. 먼저 정직 관련하여 19세기 이래 협동조합은 정량의 좋은 품질, 적정한 가격 등 정직을 실천함으로써 성장, 발전해왔다. 개방성은 조합원과 일반 국민, 정부에 조합운영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공개하는 공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합원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의 건전한 삶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행동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재정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자세가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3. 지역발전과 협동조합

우리 사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였으나 오늘날 지역은 여전히 인구감소, 경제축소, 삶의 질 하락, 고령화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효율적이다. 이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의미는 협력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기초단위의 물리적 공간이며 협동조합원이 살아가는 생활 터전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문보경, 2013). 따라서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생활하는 지역과 분리되기 어렵다. 그만큼 지역주민은 생활 터전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협동조합이 결사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유대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가진 원칙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한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7원칙 중 7원칙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nt for Community)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은 1995년 ICA에서 발표하여 개정된 협동조합 원칙에 새롭게 추가된 원칙이다. 이는 다국적 자본의 국경 없는 경쟁의 확대를 의미하는 세계화에 대응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화에 대한 협동조합 역할을 명시했다(장종익·김신양 역, 2001).

또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구성하는 주체의 대부분이 지역 활동가들이고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이유로 협동조합의 자본은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기에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적은 것이다. 영리기업은 이익에 따라 지역을 옮기지만 협동조합은 본질에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생존함으로써 외부 투자 자본보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설광원·김동석, 2012).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개발을 추진할 때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이루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이 맞물려 상호간 연대성을 강화할 때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4. 협동조합과 지역발전 해외사례 검토

1) 이탈리아 트렌티노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협동조합과 가톨릭에 의한 재단 등의 자선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구축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이탈리아의 경우는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 간의 수평적, 수직적 형태의 네트워크가 잘 발달하였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가 잘 이루어져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체계가 잘 구축되었다⁴⁶⁾.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경로로 발전해온 다양성을 인정하며 성장해왔다. 레가코프⁴⁷⁾의 경우는 규모화를 추구하였으나 협동조합연맹은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며 틈새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네 번째는 협동조합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효율적이었다. 협동조합 난립 방지를 위한 감독체제 확립,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연대기금 설치, 세제혜택, 교육촉진 등 적절한 정책을 통해 지원해 왔다. 다섯째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은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목적의 달성 등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면 한국의 협동조합은 설립 자체부터 관제 협동조합으로 출발하였으며 지원법률도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간 협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해온 이탈리아 사례에 비춰볼 때 태생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협동조합 기본 체계를 강화하여 개별법보다는 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트렌티노의 협동조합은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연대와 협동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왔다. 트렌티노의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는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힘은 지역과 사람들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1890년 거대한 경제적 전환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트렌티노는 산악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가난한 지역이었다. 근대 이탈리아는 평야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트렌티노는 알프스 산악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매우 경제적 발전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과 근접해 있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소수였다. 따라서 트렌티노는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부터 매우 지엽적이고 연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티노는 현재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주에 속하며 GDP가 유럽 평균보다 30%나 높은 지역으로 성장했다. 거기에는 상호연대와 부조를 통한 협동조합이 있었다.

트렌티노에서 최초의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신용조합형태의 농촌협동조합 은행이 설립됐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1890년 농촌이 당면한 두 가지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했기에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유리한 조건에 소비재를 공급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지역 상품의 판매와 시장의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농촌협동조합은 돈 로렌조 구에티(Don Lorenzo Guetti) 신부와 일부 주민이 독일의 라이파이젠의 영감을 받아 설립하여 무담보 대출을 단행함으로써 농업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다. 당시에는 농촌에서 대출을 받기

46) 이탈리아 금융협동조합의 경우 2012년 기준 조합원 총수가 12,348명이고 직원수는 2887명이다. 관련 협동조합 기업수는 57개이고 은행정포는 383개이다(국외출장보고서:협동조합 정부, 연구기관 민간 합동조사단)

47) 이탈리아에서 법적으로 승인된 5개의 전국연합조직 중의 하나로 다른 연맹보다는 규모화에 치중하였으며 보험 및 생협분야가 우수하다. 2011년 1월에는 협동조합연합(CONFCOOPERATIVE)와 이탈리아 협동조합연합(UNCI)이 총연맹을 결성하여 43,000여개의 회원조합을 거느리고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가 매우 어려웠기에 농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초기 협동조합의 설립은 더디고 어려웠으나 1893년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수년 만에 농촌은행과 소비자협동조합이 트렌티노 전 지역에 설립되어 1895년에는 이미 50여개의 협동조합, 13개의 농촌은행, 6개의 농업협동조합, 3개의 와인협동조합이 활동하게 되었다.

트렌티노의 협동조합은 몇 번의 위기⁴⁸⁾ 속에서도 전통적 해결 방법을 넘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오늘날 트렌티노의 협동조합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지역 발전의 활발한 주체로 자리 잡은 것이다.

현재는 주민 530,000명에 협동조합 조합원 수는 255,000명에 달할 정도이며, 협동조합 515개, 직원 16,000명, 컨소시엄 21개, 이사회 5,100명 등으로 협동조합은 여러 경제 부문에 걸쳐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1> 트렌티노 협동조합 현황

구분	조합원(명)	협동조합(개소)	고용근로자(명)
신용부문	117,000	46	2,750
농업부문	23,000	92	2,550
소비자부문	92,000	79	2,700
노동자, 서비스, 사회, 주거부문	23,000	298	8,000
계	255,000	515	16,000

출처 : 지안루카 살비토리(2013), “이탈리아 트렌티노 협동조합 ; 120년 변화의 역사”, 충남발전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표로 구성함

이탈리아 트렌티노라는 지역이 주는 의미는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제성공을 이뤘다는 점이다. 특히 생산, 가공, 유통의 구조를 스스로 마련하여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았다. 또한 지역 자원을 상품화하여 수요자와 가까운 곳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자본의 역외 유출 막았다. 이는 지역 내 자본이 풍부해짐을 의미하며 지역 주민이 그 혜택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은 지역 사업을 구상하면서 장기적 안목을 갖추었고 공정한 소득의 분배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한 것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와 이해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collective awareness)을 형성하였다. 사회적 소유(협동조합방식)와 사회적 분배는 서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공공정책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역할을

48) 1918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휴전협정을 맺으며 트렌티노는 이탈리아에 합병되어 전통적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시장을 잃었다. 지리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인접해 있어 생활권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통일은 트렌티노 주민들에게 삶의 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안겨다 준 것으로 첫 번째 시련이었다. 두 번째 시련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파시스트 당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이다. 파시스트 당은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유로 협동조합 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였으며 그 결과 협동조합의 수는 1/3로 줄어들었고 남은 협동조합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파시스트당이 몰락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국가의 법적 지원과 함께 새로운 부흥기를 맞지만 1960년 초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탈리아 경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변화, 도시화, 현대화는 협동조합의 가치나 공동체적의식이 새로운 경제 프로세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세 번째 시련이다.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로부터 분리된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등 협동과 연대를 통한 협동조합은 경제, 사회적으로 이탈리아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캐나다 퀘벡 주

퀘벡 주(州)의 협동조합 시스템은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다. 그런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은 협동조합이 지향했던 가치(value)와 필요(needs)가 좀 더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신자유주의 도래에 따른 금융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세계화, 시장개방, 경제구조조정, 지식기반 경제 부상, 복지국가체제 개편, 신생빈곤층 출현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 부재 등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퀘벡의 협동조합에 주목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런 변화에 지방정부와 협동조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동조합 개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와 협동조합 간 정책파트너로서의 사업 집행은 행정과 협동조합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진화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역체계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협동조합 발전을 이끌었다. 이들 네트워크 조직은 협동조합 간 결속력을 강화하며 지역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토록 함으로 신규 협동조합 개발을 촉진했다. 이들은 경험 있는 협동조합이 신규 협동조합을 지원케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사업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 조달과 전문적 지원책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조달 및 전문적 지원으로 민간부문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퀘벡 투자금융은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수단을 제공하였으며 전문적 지원은 연맹, RDC, 은행 등이 제공하였다. 금융부문 중 2007년 피두시(Fiducie)의 탄생은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체계로서 매우 특이한 사례다. 우선 중앙으로부터 조성된 기금 일부를 지방정부가 받아 이를 통해 양대 노동조합⁴⁹⁾인 민간과 지방정부의 투자로 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사용처 역시 무담보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민간과 함께 자금을 조성하였다. 우리의 지방정부 역시 농협이나 신협을 설득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 금융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연대협동조합의 출범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1997년 퀘벡 주 의회는 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연대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함으로 복지체제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해갔다. 연대협동조합은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동시에 조합으로 인정하면서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자가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상호에게 신뢰를 높여 줌과 동시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사회적 자본을 높였다.

퀘벡 주의 협동조합의 특징은 조합원 참여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인구는 800만 명도 수준이면서도 조합원은 900만 명이 넘는다. 협동조합의 생존율은 일반기업에 비해 2배가 넘는다. 2005년의 경우 일반기업은 설립하고 5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36%, 10년이 지나면 20%에 불과하지만 협동조합은 5년 후 64%, 10년 후 46%의 생존율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연대 협동조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1977년 협동조합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연대 협동조합이 145개 조합원 5만 명으로 성장하여 가장 주목받는 협동조합을 거듭나고 있다.

49)

3) 스페인 몬드라곤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교육이라는 점이다. 돈 호세마리아 신부의 기술전문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점은 국내 충남 홍성군의 홍동지역이 이 경우에 속한다.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인적자본을 육성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몬드라곤의 경우는 오늘날까지 교육의 전통은 살아있다. 우선 몬드라곤 내에 유치원을 두고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 또한, 협동조합 학교에서는 바스크 지역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등 민족적 자긍심과 공동체적 지향의 교육을 하고 있다. 기술전문학교를 마친 학생들을 위한 사이올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가사비데아, 최고경영자과정을 제공하는 아카스비데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면서 생애 전 과정에 협동교육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코네대학교에 협동조합의 조직 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협동과정을 개설하고 1997년 몬드라곤 대학을 설립하여 인문학 교육학부(Eskoriatza), 고급종합기술학교(Mondragon y Ordizia), 기업학(Onati), 고급종합기술학교(Markina-Xemein)를 운영한다.

다음은 지역사회와의 연대이다. 이 부분은 캐나다와 이탈리아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원칙에서 잉여의 10%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협동조합이 국제적으로 성장하여도 본사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남아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중국 등 해외에까지 진출하였음에도 지역적 기반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매우 좁은 지역에서 성장한 몬드라곤은 단일 시장과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함께 작업하며 이를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의 부문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인민 금고를 통해 개별협동조합을 끊임없이 육성하였으며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몬드라곤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260개의 회사가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4개 부문을 포괄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지배구조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자를 선임하여 경영을 관리하고 있다. 기업의 전체 자산은 우리 돈으로 약 53조원이며 제조업과 유통업 부문의 2010년 한 해 매출은 대략 22조원이다. 약 8만 4천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약 3만 5천여 명의 출자금 낸 노동자 조합원이며 나머지 인원들도 점차 조합원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 80여개에 가까운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제조업의 매출액 중 60%는 수출을 통해 올린 해외 매출이다. 제조업에서 핵심사업은 가정용품의 생산판매로 ‘파고라’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2013년 11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상태다. 몬드라곤에 소속된 핵심기업 에로스키 소비자협동조합은 스페인과 프랑스에 약 2,100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핵심기업인 인민은행은 스페인에서 5위안에 드는 대형은행으로 전국에 420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몬드라곤에는 공학부, 경영학부, 인문학부를 포괄하는 몬드라곤대학교가 있고 바스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연구소들이 소속되어 있다.

<표 2> 해외 협동조합 비교

구분	트렌티노	퀘벡	몬드라곤
특성	수평적 네트워크	정부-시민단체 협력적 네트워크	수직적 협동조합
적합한 형태	중소기업의 이상적 모델	사회서비스의 이상적 모델	한국 재벌기업의 이상적 개혁 모델
업종	제조업, 농업, 유통, 사회서비스, 금융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제조업(전기·전자) 금융, 유통, 사회서비스
금융의 성격	협동조합 네트워크 내부 기금, 협동조합 보험, 정부예산	공동체 기금, 정부예산, 협동조합은행	협동조합 내부 기금, 협동조합 은행 및 보험
역사와 정치	트렌티노 자치주의와 가톨릭 사회주의	퀘벡 분리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바스크 분리주의와 가톨릭 사회주의
장점 단점	문화적 전통과 모방의 어려움	제조업 부재에 인한 고용의 한계	특수성과 상대적 폐쇄성

5.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활성화 요인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 요인을 기반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그리고 운영적 요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1) 기반적 요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적 요인은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성장하기 위한 배경적 의미를 담고 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려면 가장 필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다. 사람이 있어야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진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사람이 협동조합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려면 조직화, 의식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스페인 몬드라곤의 출발을 보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호세마리아 신부와 그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설립했음을 볼 때 실질적으로 인적자원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적자원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며 사회 속에서 어떤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적 기반이다. 해외사례 대부분이 사람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졌으며 협동조합 원칙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이 협동조합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 대학에서는 사회교육을 통해 협동과 연대의 정신을 키우는 등 교육에 많은 열정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네트워크와 동반자 관계다. 협동조합의 기본원리가 연대와 협동이다. 이는 구성원간, 사회조직 간, 자원 간, 제도 등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를 실현할수록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 캐나다의 경우도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는 대부분 네트워크가 협동조합 초기부터 구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연합체로 출발하여 국가나 지방정부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인적 간 네트워크가 발달한 협동조합은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협동조합 구성이 인적 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기본적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중요한 의미의 하나인 상호간 신뢰를 만들어낸다.

<표 3> 지역 활성화 요인-기본적 요인

구분	인적자원	교육기관	네트워크
이탈리아	마찌니 주의자들 노동자	협동조합과 대학과 협약에 의한 교육 ⁵⁰⁾ 레가쿵에서 출판활동 ⁵¹⁾ 볼로냐 대학 협동조합 ⁵²⁾	레가코프 ⁵³⁾ CCI(가톨릭계열) ⁵⁴⁾ 이탈리아 협동조합총연합회 ⁵⁵⁾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 ⁵⁶⁾ 트렌티노 협동조합연합체 ⁵⁷⁾
스페인	호세마리아 아리스텐 디아리에타라 신부 노동자	초기 기술전문학교 교육협동조합 몬드라곤 대학교 협동조합 경영교육기관 오타롤라	CCAЕ ⁵⁸⁾ 노동자협동조합스페인연맹 COCETA ⁵⁹⁾
캐나다	Jimmy Tomkins 신부, Moses Coady 신부, Hugh MacPherson 목사, A.B. MacDonald 목사 노동자	성프란시스 자비에르(St. Francis Xavier) 대학의 사회교육원(Extension Department)에서 지역 사회의 성인교육, 협동조합교육, CURA	협동조합연합회(CQCM) 부문별 연합회

2) 제도적 요인

협동조합에서 제도적 요인은 협동조합 지원체계를 말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이

50) 국가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은 협동조합들이 학교와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협동조합 관련 수업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이 협동조합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였다.(기획재정부, 2012)

51) 협동조합연합인 레가쿵(Legacoop)이 출판사와 협력하여 이탈리아 협동조합운동의 역사, 경제, 법률, 사회학, 경영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중요한 출판물을 시리즈로 발간했다. 학자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출간하는 관련 책과 인쇄물, 그리고 보다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과정을 위해 협동조합연합이 직접 출간한 자료들이 협동조합교육의 주요 자료들이다(기획재정부, 2012).

52) 대학에서는 석사과정이 몇몇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볼로냐대학에서 15년 전에 개설되었다. 볼로냐대학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제, 역사, 경영, 법률, 사회학을 가르치고, 위에서 언급한 출판시리즈는 이 석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연구내용을 더 많은 일반대중에게 보급하려는 의도에서 계획되었다. 협동조합연합은 각각 내부에서 활용하는 직업교육자료와 지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2).

53) 레가코프는 1만5천개의 조합이 연합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850만명(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보고서, 2011)

54) 조합수는 1만9천개, 조합원 수는 288만명

55) 조합수는 5천5백개, 조합원 수는 27만명

56) 조합수는 6천3백개, 조합원 수는 47만명

57) 트렌티노 협동조합연합체는 536개의 산하조직(협동조합 515개, 기타조직 21개)을 가진 거대조직으로써 255,000명의 조합원, 그리고 181명의 상근자가 있다. 협동조합 간 협동(제6원칙)과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제7원칙)은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서 구현된다. 개별협동조합의 이익잉여금 중 30%는 연합체로 납부되며, 이 자금은 협동조합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전체예금액의 97%가 지역사회에 다시 재투자된다. 지역의 인원과 자금과 지식이 지역 내에서 서로 연계되며 상호 발전해 나가고 있다.

58) CCAE는 의회군주제 실시 이후 「단합자유법(Freedom to Unite Act)」이 통과됨에 따라 1989년 AECA와 UCAE가 합병하여 설립되었다. 이 CCAE는 현재 4500여개의 협동조합과 15개의 지역연합회를 대표하며, 각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조합끼리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59) COCETA의 현황(2011년 기준)은 210,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17,000개의 노동자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있으며 17개 자치주 가운데 16개 자치주에서 조직된 지역연합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도의 발전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지방정부의 협동조합 관련 지원제도가 잘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지원제도가 잘 된 나라의 지역은 대부분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 지원제도에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원체계도 협동조합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지원체계는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공적 조직과 예산지원 등이다. 다음은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원체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공적인 조직이나 민간 자율조직을 말한다. 이들 조직은 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협동조합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원 체계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지원체계가 직접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조직에 대해 위탁을 통해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표 4> 지역 활성화 요인-제도적 요인

구분	법체계	지원체계	중간지원조직
이탈리아	Basevi 법 ⁶⁰⁾ 헌법 제47조 마르코라법 ⁶¹⁾	주무부처 ONLUS 지방담당 Lavoro 알토아디제 자치주의 사회 정책과	컨소시엄 S이co 브레시아
스페인	스페인 헌법 제129조 제2a 항 법20/1990법	특별한 지원체계는 없음 조세 법인세 20% 감면	Sierra Nevada 그룹 FAECTA(스페인 안달루시 아 노동자협동조합 지역 연 합)
캐나다	협동조합법	퀘벡주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개발지원프로그램 (CDAP: Cooperative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CQCM RCD(지역개발협동조합: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ves) CLD(Local Community Centers) 지역사회센터

3) 운영적 요인

협동조합에서 운영적 요인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우선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조직 강화, 회계, 영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은 조직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목표에 대한 참여 동기가 높아진다. 조직의 참여 과정에서 원칙이 적용되고 그런 원칙들이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다. 과도한 규칙은 일정 부분 해가 될 수 있으나 기본적 원칙에 근거한 운영방침은 협동조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외사례에서 실패한 협동조합의 경우가 대부분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제정한 협동조합원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바, 「국가협동조합법」에서도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은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사업모델 구축으로 이는 협동조합 활성화에 중요한 사안이다. 협동조합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60) 일명 Basevi 법은 협동조합 연합체들에 회원 협동조합들에 대한 일상적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연합체들이 단순한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협동조합 운동 일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당성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61) 마르코라법은 1985년 제정하여 1987년 시행되었다. 협동조합 사업 촉진을 위해 도산위기 기업 노동자들 중 생산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드는 자에게 출자금의 3배를 정부가 보조

유지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 공공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다음은 주민의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참여이다.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운영에 참여하고 동조합으로써 조직은 유지가 된다. 이는 네트워크와는 달리 직접 주민이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 대부분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이 소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활성화에는 조직의 직접적 참여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5> 지역 활성화 요인-운영적 요인

구분	운영원칙	금융	사업모델 구축
이탈리아	협동조합 정관 역사와 정신을 강조 협동조합 헌장 준수	1992년 협동조합개발기금 (Coop Found)의 창설 및 제 도화 상호대부를 보증하는 모임구성(이강익, 2012)	레가코프, 협동조합연합 협동조합 총연합, 이탈리아협동 조합 등 연합회 컨소시엄
스페인	ICA 7원칙 준수(법) 몬드라곤 10원칙 운영원리를 개발	노동인민금융	2단계 연합회 ⁶²⁾ 연합회차원 사업모델 개발
캐나다	정관 연대협동조합의 기본원칙	연대금융 피두시(Fiducie)	공동체 경제발전운동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Movement, CED)

III. 연구설계

1. 연구대상

연구 대상국가와 지역은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룬 사례가 중심으로 이탈리아와 캐나다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부유했던 로마나 주의 협동조합보다 험난한 산간지역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은 트렌티노와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트렌티노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컨소시엄을 통해 규모화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충분히 연구 가치를 지녔다고 보았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는 복합체로서 성장한 사례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규모 기업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소유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가치가 있다. 캐나다 퀘백의 경우는 광역 지방정부의 사례로 여겨질 수 있으며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시도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사례는 자조적 자립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발한 충남 홍성군 홍동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변화 특성으로는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또한, 발전요인을 기반적 요소, 제도적 요소, 운영적 요소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62) GLG(Grupo lacteo Gallego)는 우유를 생산·가공·판매하고 있으며, 조합원 농가의 경영개선과 출하 우유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grofita는 569개의 단위조합과 6개의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만 명의 조합원을 위해 농약을 생산·판매한다. 이처럼 최근에 설립된 2단계 연합회는 단위조합에 대한 통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합회가 경영업무를 담당하며, 또한, 연합회는 단위조합의 조합원에게 농약을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며, 다른 자치지역의 연합회조직과 마케팅 정보 등을 상호 교환한다.

연구는 나라별 지역사회의 소통과 그 결과에 따라 성장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협동조합이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검토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에 지역발전에 적용될 수 있는 발전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용어 사용에서도 ‘지역 공동체’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나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협동조합법상 아직 협동조합이 아닌 단체나 결사체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공동체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협동조합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기획재정부 및 관련 연구소의 간행물, 연구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해외 자료는 학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수집하여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여 참고 하였으며, EMES의 각종 보고서 나라별 대상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홈페이지 등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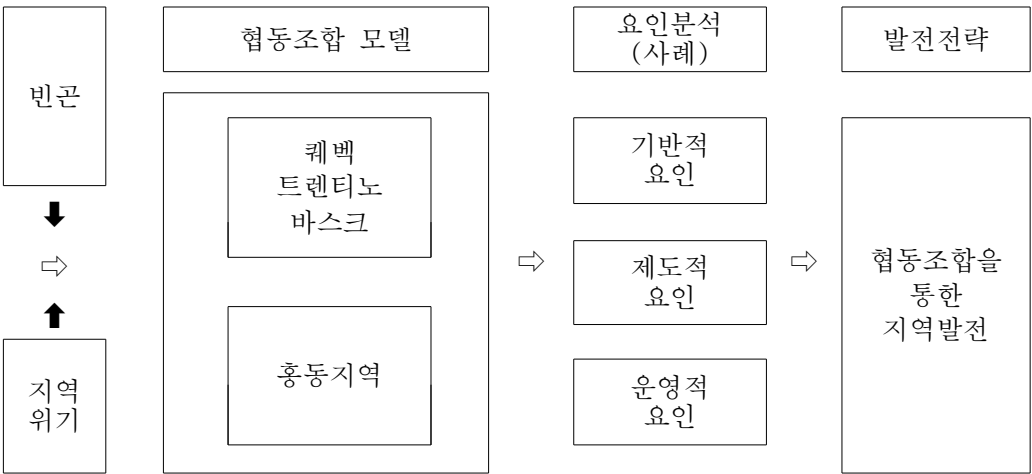
본 연구는 협동조합이 지역 경제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해외 지역 사례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여 한국 사례에 접목하여 발전요소를 추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 방법으로는 스카치폴과 소머스의 비교 사회적 방법을 선택하였다. 먼저 해외사례를 비교하였고 여기서 추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국 사례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즉, 맥락의 대조(contrast of contexts)는 같은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형태로 성장한 사례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임현진 역, 1996)⁶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맥락의 논리에 따라 각 나라의 지역별 협동조합 발생 동기와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 동기들이 협동조합의 나라별 지역별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점을 파악하여 협동조합과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특징에 대해 역사적 기원, 지원제도, 현황, 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협동조합이 빈곤과 지역 위기에서 출발하였음을 살펴보고 또한, 해외 사례에서 발전요인을 추출한다. 이후 홍성군 홍동지역 사례를 발전요소에 적용하여 지역발전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에 앞서 배경과 발전특성인 내생적 발전전략과 외생적 발전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비교 검토한다. 이후 지역발전 전략으로써 협동조합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63) 테다 스카치폴·마가렛 소머스, 임현진 역(1996), “거시사회 연구에 있어서 비교사의 유용성,”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1』, 부산, 열음사, 179~182쪽

<그림 1 연구모형>



IV. 홍동지역 협동조합방식의 지역발전 요인 분석

1. 일반현황

홍동면은 군청소재지의 남동부 약 10Km 지점에 있으며 동으로는 초룡산이 예산군 광시면과 경계를 이루고, 서로는 구항면과 광천읍에 접하고 남으로는 장곡면, 북으로는 금마면과 접한 야산 구릉지의 전형적인 농촌으로 1914년 홍동면으로 개칭됐다. 이때는 18개리 41개 마을이었으나 1983년 운용, 비교 사회적, 율림리는 광천읍으로 구릉리는 홍성읍으로 편입되어 14개 리 33개 마을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문당리는 자연발생 마을로 정확한 형성 시기는 알려진 바 없다.

<표 6> 홍동지역 공동체 부문별 현황

구분	홍동면 협동조합 방식의 경제 및 지원 조직
노동자	원예조합 가꿈
소비	풀무생협, 풀무학교 생협, 협동조합 카페 뜰, , 축산용(협동조합 음식점), 갯골목공실
생산	홍동농협, 친환경 RPC, 축산용 미생물제제생산공장, 홍동농협 부산물 비료공장, 영농조합법인 풀무영농, 농업회사법인 풀무축산, 농업회사법인 홍성풀무,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 (주)풀무사람들, 농업회사법인 다살림
교육·보육·돌봄·문화	홍동지역 아동센터, 장곡지역 아동센터, 갯골어린이집, 밝맑도서관, 그물코출판사, 하늘공동체, 여성농업인센터, 꿈이 자라는 뜰, 갯골생태농업연구소, 교육농연구소, 마실이 학교, 느타나무 헌책방, 지역 화폐
의료	뜸 방
공제, 금융	풀무신협
환경에너지	에너지전환
협의회, 연합회, 지원조직	지역 센터 마을 활력소, 홍성사회적경제협의회, 순환농업센터, 홍성친환경농업연합회

*자료: 갯골생태연구소(2010)

2. 협동조합 발전 배경

첫째, 전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홍성지역의 경우도 안승준의 ‘국가에서 공동체’에서 1915년까지 139개 197개의 두레 공동체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83.2%는 마을 자체의 농악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역자치와 공동체 문화가 뿌리를 내린 곳이다. 또한, 풀무학교가 있는 팔래리는 사립교육기관인 형광학원이 일제 말기까지 한글을 가르쳤던 고장이다(홍순명, 2009).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해외사례에서 대부분 협동조합이 성공한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상호부조가 발달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계의 전통이 현대사회의 공동구매 형태로 재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시대와 조건만 달리했지 결국 우리 민족의 DNA에는 협동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1960년 이후 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먼저 한살림협동조합은 1965년 가톨릭 지학순 주교의 부임으로 1966년 가톨릭 농민회가 출범하고 원주 신협을 설립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이후 밝음 신협이 만들어졌다. 이후 가톨릭을 중심으로 연구

소 설립 등 협동조합운동의 기반을 조성한 후 1979년 평창군 신리에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세워지는 등 많은 농촌 지역에 소비조합이 만들어지고 1985년 6월에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이어 1986년 12월 서울에는 한 살림 농산이 출범하고 1988년에는 한 살림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 조직이 탄생하였다. 장기려 박사가 1968년 5월 13일 부산시 동구 초량의 도시빈민들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청십자의료협동조합(초기에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나 이후 ‘청십자의료협동조합’으로 변경됨.)’을 창립하였다. 이후 조합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1988년에는 23만여 명이 가입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1989년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1989년 6월 30일자로 해산하였다.

1972년 성남 주민교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교회 의료협동조합’을 시도하였으나 유신정권의 시작으로 중단되고 1976년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이 난곡 빈민 지역에 설립되어 10년간 유지되었다. 1994년 안성의료생협이 설립된 후 인천, 안산 등지에서 의료생협이 설립되어 2013년 현재까지 17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한 살림 생협이 출발한 후 여러 종류의 생협이 만들어졌으며 대표적 생협으로는 한국여성민우회(현 행복중심 생협연합회)가 1989년 12월 출범하였다. 1986년 농업개방과 맞물려 전국 200여 개가 넘는 생협이 설립되지만, 경험부족과 1997년 IMF를 전후하여 231개 생협의 66.7%인 154개가 소멸할 위기에 처하자 1997년 경인지역의 규모가 큰 생협이 모여 ‘수도권연합사업회(현 두레생협)’를 만들었다. 여기에 합류하지 못한 소규모 생협들은 98년 다시 모여 ‘경인지역생협연대(현 아이쿱생협)’를 시작했다.

이중 풀무소협은 1980년 창립과 동시에 경실련 생협과 함께 지역 생협들과 쌀 직거래사업을 펼쳤으며 1980년대 중후반 소비자협동조합들이 설립되면서 이들과 직거래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1989년 한국여성민우회생협(현 행복중심 생협연합회)이 풀무 생협과 유기농산물 직거래로 공동구매를 시작하는 등 국내 생활협동조합과 흥동지역 유기농 조합들과 연관을 맺으면서 성장해왔다.

셋째, 사상적 측면에서 볼 때, 흥동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오산학교가 있었다. 당시 오산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정주군 갈산면 용동촌으로 이승훈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던 마을이었다. 용동촌은 자치조직인 용동회가 마을을 이끌었으며 과수원, 교회, 오산학교, 병원과 약국, 공중목욕탕 등 당시에는 근대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었다. 마을의 운영은 마을 길 정비, 변소 청소를 깨끗이 하였으며 집에는 손 직조기를 두어 생산을 장려하고 수확기에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협동생활이 이뤄졌다. 밤에는 야학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 중 문맹자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조만식 문하에서 물산장려운동과 함께 평양소비조합을 창설하여 민족자본을 형성하여 정치적 독립을 피하고자 했던 협동조합운동을 몸소 경험했다. 조만식 선생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문헌으로 1929년 9월 청년지에 “조선 민족의 긴요한 경제사업으로 농촌사업, 물산사업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조만식은 경제적 자립이 독립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또 1931년 4월 4일 자 동아일보 5면에서는 “몰락하는 조선인의 경제 상태에 비치어 협동조합운동은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조직(관서협동조합서리)을 보게 된 것이다.”라는 대목에서도 조만식 선생의 협동조합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찬갑은 이승훈이 설립한 학교에서 수학함으로써 이승훈의 사상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승훈은 애초 용동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단순한 여주이씨를 위한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으며 교육기관으로 서당을 설립하여 운영했다. 그러다가 1907년 평양 모란에서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돌아와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이승훈은 서우학회, 신민회에 가입하는 등 민족계몽운동과 구국운동에 헌신하는 계기가 됐다. 도산 안창호는 독립운동의 전략으로 경제적 기반과 교육적 기반의 성립에 주력하고자 이상촌 건설 운동을 펼쳤다. 당시 국내외 사정으로 이상촌은 쉽게 건설될 수는 없었으나 안창호 선생 활동 내내 이어진 운동이었다. 오산학교에서 자란 이찬갑은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제안과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가 흥성군 용동면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풀무 학교였다. 또한, 풀무학교 내에 소비조합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사상적 측면으로는 조만식, 남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흥동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요인

1) 기반적 요인

흥동지역의 기반적요소로서 인적자원, 교육자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인적자원은 1세대 공동체 설립, 2세대 풀무학교출신, 3세대 풀무학교 출신중 정착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자원을 말할 수 있다. 1세대는 공동체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찬갑, 주옥로, 홍순명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이 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주도했다. 이찬갑과 주옥로는 풀무학교를 세워 교육적 이념을 제공하였다. 2세대로는 이변영 및 주형로를 들 수 있다. 이변영은 풀무학교 출신으로 지역 언론을 만들어 지방자치의 기틀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주형로는 오리농법을 시도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3세대로는 조대성, 이훈호, 최문철, 이동근, 박형근, 장은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특징은 주로 풀무학교 전공부 출신이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정착한 젊은 층이다. 조대성은 협업농장을 통해 젊은 귀농자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으며 이훈호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준비 중이다. 최문철은 지역 장애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꿈이 자라는 뜰(이하 꿈뜰)’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며 장애청소년들의 직업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동근은 동네 마실방 뜰, 흥동천사회, 의료생활을 준비하는 모임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형근은 교사 출신으로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완충지대 역할을 위해 협업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은 외부에서 귀촌한 사례로 그물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흥동지역 공동체를 소개하거나 친환경농법 등을 소개하며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자원으로는 정규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분류하였으며 정규교육기관으로는 갯골어린이집, 흥동초등학교, 흥동중학교, 풀무학교 풀무전공부가 있다. 갯골어린이집은 1979년 협동조합방식으로 설립되어 1992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주로 전통과 협력적 방식, 생태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흥성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교과를 개설하여 교육을 한다. 풀무학교는 설립이념에 따라 지역이 학교라는 주제로 지역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동체 지향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풀무전공부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을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가 자립하는 농사, 마을 교육, 지역 속에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 교육을 교육의 본질로 추구한다. 게다가 울타리 없는 풀뿌리 주민지역대학, 마을과 더불어 사는 대안대학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교육으로는 밝맑도서관에서 평생교육과 흥성환경농업교육관을 통해 교육을 한다. 밝맑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자발적 기금조성으로 설립된 3층 건물로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문학 강좌를 통해 지역주민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흥성농업교육관은 마을주민들의 재교육 및 마을회관의 역할을 하며 도시민들에게는 농업교육을 하고 있다. 환경농업교육관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유기농 농산물 재료로 쓰는 식당이 있고 2층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60여 평의 강당이 있다. 흥성환경농업관은 연간 2만여 명이 다녀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사회교육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기반적 요소의 3번째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로 기관, 생활조직, 협동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으로는 흥성군청, 농업기술센터, 흥동면사무소, 흥동주민자치센터 등이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협력적 기반보다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무지원에 머물고 있다. 생활조직으로는 마을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상여계, 대동계가 있다. 이들 조직은 자율성보다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협동조직으로는 초기 풀무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마을 운동의 주체들이 마을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외부로부터 이주한 새로운 세대들이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213년 기준으로 36여 개의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준비 중이며 일부는 협동조합 설립과는 무관하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는 법체계, 지원체계,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체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지방정부의 조례가 있다. 법에는 농협을 비롯하여 8개 협동조합법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아래로부터의 필요 때문에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8개 협동조합은 정부 정책상 필요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형식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었다. 이는 협동조합이 가진 자율과 자조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크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자율적, 자발적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줌과 동시에 산업구조가 1,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재편되어가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의미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출발하였다. 조례로는 광역정부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조례로서는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법률로서 정의된 용어로 협동조합 및 관련 조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되는 기업으로 협동조합이나 기타 조직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지원은 가능하다. 사회적기업 이외에도 마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조례보다는 정부 정책 아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원 금액의 일부분을 홍성군이 지원하고 있다.

제도적 요인의 두 번째로 지원체계가 있다. 지원체계로는 중앙정부의 협동조합과가 있으며 충청남도는 기획관리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내에 지속가능발전팀과 사회적경제팀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2명, 사회적경제팀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홍성군은 기초자치단체인 홍성군은 담당부서를 설치할 만큼 사회적경제에 대한 업무영역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 세 번째는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홍성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을활력소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이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과 지역 일을 거들며 정보 공유 및 지역자원조사, 교육연구사업, 자주적 협동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활동,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3) 운영적 요인

운영적 요인에는 운영원칙, 금융, 모델구축 등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운영원칙에서는 대부분 관련법이나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두고 있으며 5가지를 충족하고 있다. 초기 공동체의 경우 경제적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나 최근이 공동체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번째로는 지역자원의 활용과 적절한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주민이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는 교육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 운영원칙에 반영되고 있다.

운영적 요인의 두 번째로 금융 부문은 농협과 신협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주민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과 신협은 개별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이라는 의미보다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지역사회 협동조합과 협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동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농협과 신협,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인적자원 등 상호 유기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가능성을 열려있다. 주민기금은 주로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설립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홍동지역에서 유기농으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 1997년부터 당시 오리농법 작목반 30가구는 벼 수매 시 판매 대금인 6,300원 중 5% 선인 300원을 마을 환경기금으로 적립하여 3년간 4천5백만 원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환경교육관을 설립하는 등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움직이고 있다. 현재는 마실방 뜰 협동조합은 호프 한잔에 500원 기금적립 하는 등 스스로 기금 조성을 위한 운영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운영적 요인의 세 번째로는 모델구축에 있다. 정부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모델구축을 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모델개발을 하고 있다. 홍동지역 자체 내에서도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밝맑도서관과 마을활력소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를 확장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밝맑도서관은 소모임을 주선하여 협동조합 전 단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활력소는 농교육네트워크, 지역 화폐, 의료생협 등이 마을주민과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준비모임을 꾸준히 갖고 있다.

4. 홍동지역 변화 특성

1) 내생적 발전

내생적 지역발전이란 지역발전의 추진 주체와 발전 동인(動因), 발전성과의 귀속 등이 모두 지역 내에서 존재하는 발전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내생적 지역발전은 국가를 비롯한 지역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하향식 지역발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자신의 개발을 스스로 주도한다. 또한, 외부 자원이나 외부로부터의 투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의 통제 속에 있는 자원을 투입하는 개발을 통해 그 혜택을 지역에 귀속하는 발전전략이다(박인권, 2003).

내생적 개발 요소에는 지역의 자원개발, 기술개발 능력 및 기회확충, 농촌개발을 위한 주민조직,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발, 주민의 경제 사회적 활동 증진 등으로 이를 홍동 지역에 적용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7> 홍동지역 내생적 개발요소

내생적 개발요소 ⁶⁴⁾	문당리 내생적 개발 요소
지역의 자원개발	마을 개발계획 수립 오리농법을 통한 친환경농업 환경마을 구축
기술개발 능력 및 기회확충	풀무학교 설립 졸업생의 인적자원 구성
농촌개발을 위한 주민조직	지역 센터 마을 활력소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발	마을 만들기 전개
주민의 경제 사회적 활동 증진	주민 협력 문화 체계

2) 외생적 발전

외생적 발전요인은 특별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외생적 발전 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로 외생적 발전은 정부 주도로 이뤄진 정책적 지원을 외생적 발전으

64) 정기환 외(2011)

로 보았다. 이는 흥동지역의 공동체 발전이 주로 내부적 역량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서 외생적 발전을 정부 주도의 발전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외생적 전략은 주로 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것이 흥동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보고자 하였다.

<표 8> 흥동지역 외생적 개발요소

연도		주요 내용
1970년대	1972	새마을 운동
	1978	취락구조개선사업
1980년대	1982	경지정리사업
	1989	주거개선 환경사업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1990년대	1999	환경농업시범마을 가꾸기 사업
2000년대	2003	정보화시범마을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2단계)
	2009	마을경관 조성사업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 자료: 하명은(2013)

5. 협동조합을 통한 흥동지역의 지역발전 특성

흥동지역의 지역발전 요인들을 통해 흥동군 지역발전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의 성격과 같은 맥락이 발견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 주체 육성

첫째, 흥동지역은 이찬갑이 풀무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해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했다. 풀무학교는 이승훈의 오산학교 이념을 흥동지역으로 옮겨와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인재를 배출했다. 풀무학교의 이념 자체가 “더불어 사는 평민”으로써 공동체 지향적인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학교의 풍토에서 영향을 받은 2세대들이 졸업 후 각종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체를 설립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갔다. 이런 가운데 갓골어린이집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조직으로 사회 첫출발부터 협동조합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흥동 지역아동센터, 장곡지역 아동센터, 하늘공동체, 꿈뜰 등 협동조합 방식이거나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선생이 활동하고 있는 교육과 돌봄 조직들이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특성화 교과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특히 중학교는 공모제 교장 이후 지역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풀무고등학교와 전공부는 지역사회에 실질적 인적자원을 배출하며 지역 내 협력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풀무 고등학교와 전공부 출신들이 학교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풀무학교 전공부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101명이고 창업한 학생이 61명,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업 관련 일을 하는 창업 생이 46명, 학교 주변 지역에 정착한 학생이 20명으로 나타났다(장길섭, 2011). 따라서 풀무학교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산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흥동지역은 교육의 첫출발인 어린이집부터 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전문대학까지 협동조합의 이념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즉, 생애 전 교육이 협력적 기반 위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밝맑도서관을 설립하여 사회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함양과 지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풀무학교가 호세마리아 신부가 1943년 설립한 학교와 비슷하다면 밝맑도서관은 캐나다의 성프란시스 자비에르(St. Francis Xavier) 대학의 사회교육원(Extension Department)과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주로 성인교육과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밝맑 도서관 역시 사회교육을 지향하고 인문학강좌, 소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 형성에 일정한 이바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지식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체계적 교육과 훈련 그리고 체험 행사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교육적 기반이 없으면 공동체 참여자들이 경제부문에만 익숙해지면서 지원금액과 경제적 목적을 위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간지원 조직 등 자체적 협력기반 조성

홍동지역은 스스로 중간지원조직 등 자체적으로 협력 기반을 만들어 왔다. 대부분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중간지원조직 체계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탈리아 컨소시엄, 캐나다의 CDEC(지역 개발공사)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방식의 중간지원 조직체계다. 이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구실을 하면서 협동조합 생태계 구성 등 협력적 문화를 이끌고 있다. 홍동 지역 역시 이런 협력적 기반을 이끄는 조직을 최근에 구성하였다. 초기에는 풀무학교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이후 오리농법을 통한 영농조합 법인, 이후 문당리 농업환경교육관이 중간지원 조직의 구실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마을 활력센터를 설치하여 마을 공동체의 중간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센터의 경우는 중간지원 역할은 물론 자체적 자립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규모화를 위한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밝맑도서관 역시 평생학습 이외에도 협동조합 전 단계의 소모임을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홍동지역의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제도적 기반 없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설립된 사례이기 때문에 특이한 구조다. 홍동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기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도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전략에 의해 지원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지역은 유기농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교육관을 설립하여 마을의 공동 재산을 형성하였다. 이어 밝맑도서관은 주민 기금으로 건립하여 스스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였다. 마을 활력센터 역시 주민 주도하에 설립하여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며 협력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마을활력센터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아 이들 할머니협동조합과 같은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정부사업이나 지방정부 사업을 유치한다. 또한, 마을 소개 등으로 일정한 자립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과 한계를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3) 협력적 가치의 형성과 협동조합 운영원리 도입

운영 측면에서 전통적 협력적 가치 형성과 협동조합 운영원리가 마을 공동체에 적용되었다. 이들 공동체 조직은 협동조합 방식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는 못하였으나 대부분의 공동체가 1인 1표라는 민주적 운영원리, 공동출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개방성, 공동출자를 통한 공동 소유 및 독립적 운영, 공동체 간에 협력을 따르고 있으며 밀도 높은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초기의 공동체는 유기농을 통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등 경제적 자립의 의미가 강했으나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경제적 의미와 함께 사회적 가치가 함께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화, 보건, 사회서비스 등의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거나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

들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이 대부분 3세대 지역 운동가들이다. 이들 중 풀무학교 전공부 출신으로 이미 교육과정에서 공동체의 이념적 가치와 협동조합 운영방식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3세대들은 협동조합 가치를 공감하여 지역사회에 이주한 것으로 이미 협동조합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동 지역은 풀무학교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경험한 지역이다. 물론 전통적인 두레 공동체와 계(契)가 풀무학교 설립 당시까지 존재하였으며 대동계와 상여계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협력적 기반 위에 풀무학교의 이념적 계승은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운영원리가 내재하였을 것이다. 또한, 일본 강점기인 1924년 '홍성소비조합'이 설립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일본 강점기시 협동조합운동 세력은 '조선협동운동사', YMCA주도의 농촌협동조합운동, 사회주의 계열과 물산장려 운동가들로 이들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통 위에 풀무학교를 통해 오산학교의 이념적 가치와 조만식의 소비조합 운동의 경험, 안창호의 이상촌건설 운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다. 따라서 홍동지역의 주민들은 내재한 협동적 전통과 협동조합 운영원리를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초기 협동조합의 이념적 가치관이 자조적 협동조합 운동의 경험에 고스란히 계승되면서 주민들은 고스란히 그 운영적 원리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일부 풀무학교 출신들은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교육받았으나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자원인 일반 농민들 역시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어느 정도 협동조합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농민들의 참여가 있었다.

4) 내생적 발전전략으로써 자립경제기반 확충

홍동지역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유기농업을 통해 자립경제 기반을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홍동지역의 경우는 지역에 소재하는 삶의 방식이었던 농업을 유기농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산업화를 이룬 사례이다. 또한, 유기농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만들고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졌고 이를 근거로 하여 내생적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였다. 2000년도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 년 계획'이라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면서 구축된 자립기반은 이와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설립됐다. 유기농을 통한 영농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자 이에 부응하여 풀무신허에서 유기농을 지원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회사인 '미생이 세상'을 설립하였다. 내생적 발전은 상호 연계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원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지역 특산물인 한우를 활용한 영농조합, 지역 이야기를 매개로 하는 출판사, 지역 농산물, 지역에 필요한 목공소를 공동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중고서점, 우리 밀 빵 가게 등 지역 자원이 협동조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내생적 자원으로서는 주민들의 협력문화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밝맑도서관, 환경기금 적립을 통한 환경교육관 건립, 협업적 농업구조, 마을활력센터 설립 등 대부분 주민의 협력적 문화가 자산으로 역할을 한 사례다. 이런 주민과의 협력적 연대감은 마을 주민들의 애착심과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써 또 다른 협력적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5) 자조적 자립기반을 통한 외생적 발전 전략 구축

홍동지역은 국가 지원 등 외생적 발전의 적절한 활용을 들 수 있다.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적 구조 아래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나라이다. 퀘벡 주의 경우 대부분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일정한 금융을 조성하거나 조직을 구축하면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원받는 조직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써 이해된다.

외생적 발전전략으로써 홍동지역을 살펴보면 1970년대 초기 새마을운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홍동지역 역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정책에 편입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의 지원방식이 주로 공모 형태로 진행되면서 자립적 기반이 형성된 지역을 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이 당시는 이미 오리농법을 통한 유기농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상황에서 환경농업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을 유치하였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중앙정부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중앙정부의 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이 증대,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인한 경제적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유치하면서 내생적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최근에는 ‘홍성 오누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농어촌공사 충청남도지부, 홍성군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자원조사를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경관 조성,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사업, 체험사업을 위한 기반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시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런 의미에서 홍동지역의 발전은 내생적 발전을 통한 초기 발전 형태에서 국가의 지원 등을 통한 외생적 개입이 지역 발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 이는 앞으로 지역발전에 중요한 사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내생적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기초적 역량을 갖춘 조직에 지원해야 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 실패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지역 내에 내생적 발전전략이 없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내생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마을 만들기 등 기초적 공동체 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원방식에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례는 주민이 자조적 자립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어 민간조직이나 중간조직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외생적 발전에서의 기본적인 전략은 바로 내생적 발전전략을 수립 후 그 계획안에서 외부의 지원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홍동지역에 중앙정부의 지원사례가 다른 지역처럼 실패로 돌아가지 않은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홍동지역의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전통적, 역사적, 사상적 배경 등 자조적 자립적 공동체 형성의 배경과 마을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내·외생적 발전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협동조합 방식으로 발전한 해외의 지역사례에서 발전요소를 추출하여 홍동지역의 공동체적 성격과 상호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협동조합 방식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홍동지역 조사에 앞서 이론적 배경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발전의 기본적 개념, 협동조합의 개관을 통해 사례 지역의 성격과 홍동지역에 형성된 공동체의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트렌티노, 캐나다 퀘벡, 스페인 바스크 등 해외지역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협동조합을 통한 발전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발전 요인은 선행연구(권홍재, 2011)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요인 추출 시 해외 사례 분석방법은 비교 사회학의 ‘맥락의 대조’를 활용하였다. 맥락의 대조는 협동조합이라는 같은 기반 위에서 이탈리아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퀘벡의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스페인 몬드라곤은 수직적 협동조합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을 조사는 현재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이는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인과론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를 전통적,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통해 고찰하였다. 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주민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으며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논의의 전개는 우선 해외사례를 통해 협동조합의 발전 방식을 이해하고 다시 이를 한국의 한 지역사례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협동조합 방식의 발

전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시작되었다.

분석 결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홍동지역의 발전전략이 과거 다른 지역의 발전전략과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 이외에 홍동지역의 협동조합 방식의 발전에도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기초자치단체와의 공동체적 협력적 기반이 없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협력적 기반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생적 협동조직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생태계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 부문은 앞서 제기한 기반적요소, 제도적요소, 운영적 요소의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퀘벡 주(州)의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연합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조적 자립적 기반을 갖춘 지역공동체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중간을 담당할 연합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지역 사회의 공동체 조직들이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외부의 지원을 연합회 차원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기적 연결체계는 갖췄으나 이를 정치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연합조직의 미형성은 홍동지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중앙정부 역시 앞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경우 중간지원조직이나 연합체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자조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체계가 지역 공동체 조직의 연결성과 네트워크를 무시한 채 단위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부적 갈등요인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연합체의 구성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분야는 이탈리아의 컨소시엄 운영 사례를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 다른 한계는 협동조합 방식이 경제적 단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협동조합이라는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분야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으나 이는 경제적 이익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풀무 생협과 영농조합의 경우 풀무 생협에서 판매의 한계점에 다다르자 결국 많은 사람의 조합원 탈퇴가 있었던 것은 경제적 이익에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와 협동조합이 가진 사회적 목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협동조합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실패한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에서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 지역발전을 함께 견인하고 있으나 홍동지역의 경우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협동조합이 없다. 이는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캐나다의 연대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협동조합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원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협동조합 은행인 신협과 농협이 담당해야 하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과 생협이 협동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례가 존재하기도 하며 농협이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결점을 찾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홍동지역의 경우 이미 설립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풀무신협과 홍동농협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신협을 통해 지역 협동조합의 금융을 지원하고자 하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한 지역발전방안의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지역사례에 접목하는 등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사례의 대응관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발전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앞으로 협동조합 방식의 지역발전사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해 전통적, 역사적, 사상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점검하는 등 인문사회학적 방법을 통해 지역과 협동조합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에 해외와 지역의 사례를 미시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갯골생태연구소, 「우리 마을입니다」, 홍성, 그물코, 2010.
2. 고병호,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학회지」, 제6권 2호, 지역개발학회, 1994, pp. 87-124.
3. 권홍재, "커뮤니티비즈니스 방식의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4. 기획재정부, 『상생과 통합의 미래 협동조합과 함께』, 2012.
5. 김용웅 외, 『新지역발전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p. 28.
6. 김용웅·차미숙, 『지역개발정책의 이론과 실제』, 국토개발연구원, 1998, pp. 168-171.
7. 김용웅·차미숙·강현수, 「新지역발전론」, 경기, 도서출판 한울, 2011, pp. 77-125.
8. 김태완·김선희·양진홍·이승복 외(200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실태와 지역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3, pp. 21-22.
9. 김태환·김광익·류승한·변필성·황영미,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 (I)」, 국토연구원, 2004, p. 19.
10. 문보경,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개발하라, 충남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자료집, 2013, pp. 31-32.
11. 박인권, "용어풀이 63. 내생적지역발전", 「월간국토」, 2003, 통권 265호, p. 54.
12. 설광연·김동석, 「협동조합 기본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 KDI 연구보고서, 2012, p. 43.
13. 신정완,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시장경제 모델' 구상", 「동향과 전망」, 65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5, pp. 119-146.
14. 이강익,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제1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2.
15. 장길섭, "전공부 농업실습 10년을 돌아보며", 「지역과 학교」, 2011, 제22호, pp. 60-69.
16. 장종익·김신양 편역,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2001, p. 98.
17. 정기환 외, 「농촌개발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1, p. 26.
18. 조명래, "지역개발학의 패러다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7권 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1995, pp. 51-67.
19. 하명은, "농촌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및 생활공간 변천 특성 연구:충남 홍성 문당리 마을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 49.
20. 홍순명, 『홍순명선생이 들려주는 풀무학교 이야기』, 서울, 부키, 2009, p. 101.
21. USOM. (1958). "Report of the First ROK - community Development Conference on August 21," USOM Mimeograph.: 최상호, 『지방시대 지역사회 개발론』, 서울, 박영사, 2004, 재인용.